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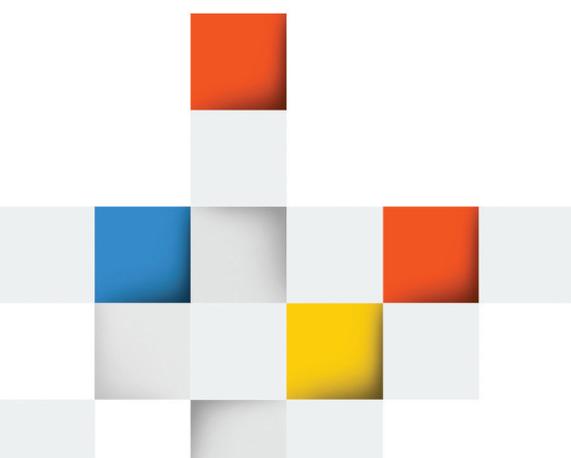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

김은희 (한국관광공사)

- 빅데이터를 통해 세대별 국내 여행활동을 추적한 결과, 여행활동은 50대가 가장 활발했으며, 10대와 70대 이상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이동 반경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적 여행활동을 하기 어려운 1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행이동 반경이 좁아졌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활동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특히 20대의 여행이동 감소폭이 컸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소폭 증가한 60대 이상 고령층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여행이동 또한 감소하였다.
- 인문형, 레포츠형,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20대의 여행이동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자연형과 쇼핑형 여행지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대는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증가하기도 했다.
- 10-30대가 주를 이루는 MZ세대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감소하지만 특색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포함된 음식 유형에서는 이동이 증가해 여행에 선택과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늘 무언가를 향하여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는 호모비아토르(Homo Viator) 즉, 여행하는 인간은 인간과 여행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프랑

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은 여행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 호모비아토르인 인류와 여행은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한다.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생은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켰고, 호모비아토르인 인류에게 여행의 단절을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의 제한’을 가져왔고,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여행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협에 강제 ‘셧다운’을 당하며 격동의 변화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위협은 여행하는 인간인 호모비아토르에게 억눌려온 여행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돌파구로서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들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여행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들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여행은 사회적 층위에 따라 행동양식의 변화가 큰 사회적 행위이다.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과 역동적 현대사로 인해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층위에 따라 행동양식의 변화가 큰 여행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여행행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세대별 여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UNWTO),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산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한국의 국내외 여행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www.datalab.visitkorea.or.kr)’이 제공하는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별 여행행동 양식을 시의성 있게 분석함으로써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 여행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춰버린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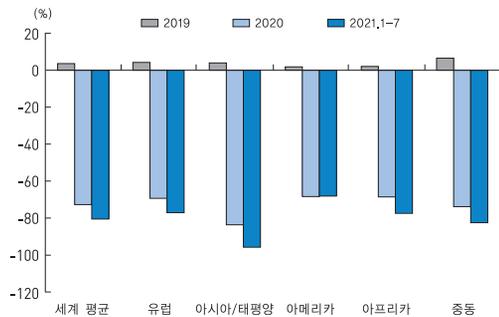
한국의 현대사는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현대사의 변화만큼 한국인의 여행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마이카시대가 도래하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 여행이 갖는 위치와 의미는 달라졌다. 또한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한국의 경제수준이 상승하면서 여행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행행태 변화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든 코로나19의 발생은 전 세계 해외여행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들었다. [그림 VII-23]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간 이동의 제한으로 2020년 국제여행객은 2019년 대비 73% 감소했으며, 2021년(1-7월)은 2019년 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모든 대륙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VII-24]는 한국의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

를 보여준다. 한국의 내국인 출국자는 2016년 2,238만 3,000명에서 2019년 2,871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85.1%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VII-23]과 [그림 VII-24]의 국제관광 관련 감소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2020년 세계

[그림 VII-23] 세계 국제관광인구의 변화, 2019-2021.7



주: 1)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전년 대비 국제관광인구의 증감률이며, 2021년 자료의 경우 코로나19 전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을 비교연도로 설정함.  
2) 2021년은 1-7월 누적 인구 기준임.  
출처: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TOURISM DASHBOARD (https://www.unwto.org/unwto-tourism-dash-board).

[그림 VII-24] 내국인 출국자 수의 변화, 2016-2020



주: 1) 증감률은 전년 대비 출국자 수의 증감률임.  
2) 출국자 수는 1998년부터 승무원(crew members)이 포함된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의 국제관광과 한국의 해외여행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여행 변화는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내여행 동향

여행이란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예: 단순식사, 출퇴근 등)와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예: 거주지 근처의 산책, 쇼핑, 교양활동, 취미활동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즉 여행행위란 단순히 거주지를 벗어나는 사람의 이동 행위가 아닌 여행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를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여행의 정의로 인해 실제 한국인의 여행 총량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여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여행총량을 추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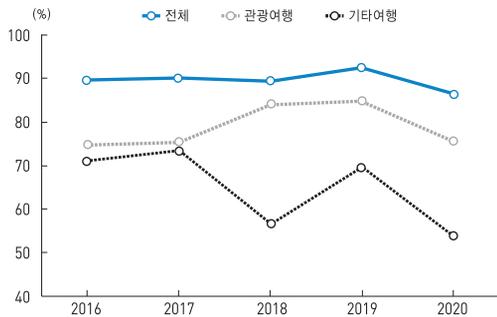
이 조사에서는 국내여행 총량을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등 4가지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여행을 ‘관광여행(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과 ‘기타여행(출장·업무 방문·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방문, 단순 결혼식 및

장례식 참여 등 목적의 여행)’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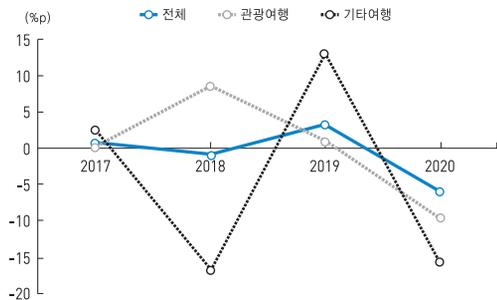
[그림 VII-25]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여행 경험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5년간 국내여행 경험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 89.5%이던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7년 90.1%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였지만, 2018년 89.2%로 전년 대비 0.9%p 소폭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2%p 상승하여 92.4%의 경험률을 나타

[그림 VII-25] 국내여행 경험률의 변화, 2016-2020

#### 1) 국내여행 경험률



#### 2) 전년 대비 증감



주: 1) 국내여행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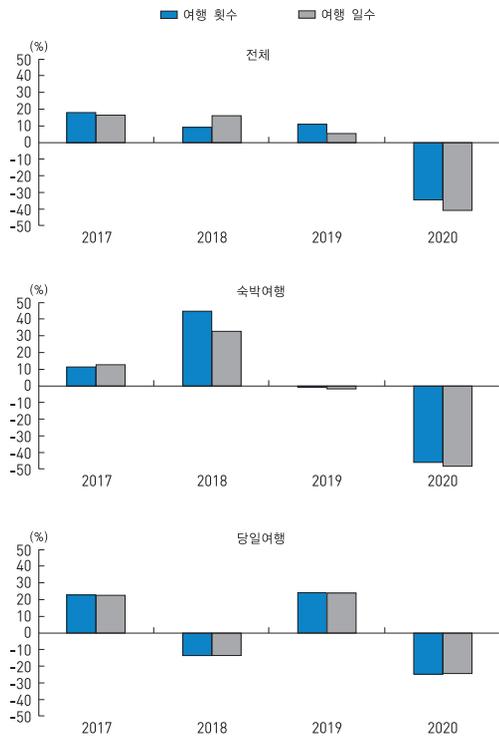
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6.0%p 감소한 86.4%를 나타내며,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여행 경험률을 보였다.

국내여행 중 관광여행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코로나19의 등장으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9.5%p)를 보였다. 출장, 귀성, 친지방문 등 기타여행의 경우 2019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광여행과 마찬가지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15.8%p)를 나타냈다.

[그림 VII-26]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는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이동이 급감한 2020년의 경우 여행 횟수(-34.7%)와 여행 일수(-40.6%)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여행 횟수에 비해 여행 일수의 감소폭이 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거리 당일여행을 선호하게 된 여행의 변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여행의 변화는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의 증감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숙박여행의 경우 전년 대비 여행 횟수의 증감률이 -45.5%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당일여행은 -25.0%로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림 VII-26] 국내여행 횟수 및 일수의 변화, 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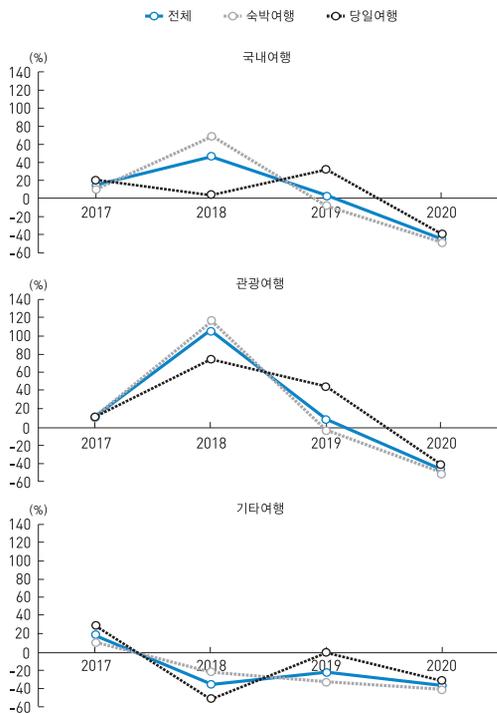


주: 1) 국내여행 횟수 및 일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그림 VII-27]은 국내여행 지출액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여행 지출액은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여행 지출액은 2020년 45.4% 감소하였으며,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은 각각 -47.9%, -40.0%로 감소해 숙박여행의 감소폭이 당일여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국내여행 지출을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관광여행 지출액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여행의 지출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광여행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당일여행 지출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출액의 흐름은 한국인의 여행 행태가 점차 위락과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짐을 보여주며,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당일 관광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VII-27] 국내여행 지출액의 변화, 2017-2020



주: 1) 국내여행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빅데이터로 바라본 세대별 국내여행 이동**

거주지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여행은 점차 기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일상여행’, ‘한달 살기’, ‘워케이션’ 등과 같이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한 여행의 행태들이 등장한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의 패러다임은 더욱 일상 속으로 확장됐다. 이렇듯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코로나19 시대에 여행의 행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동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실제 이동행태를 반영하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여행 이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특히 여행은 활동적 측면이 강조되는 적극적 여가활동 유형으로서 세대 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행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대별 여행이동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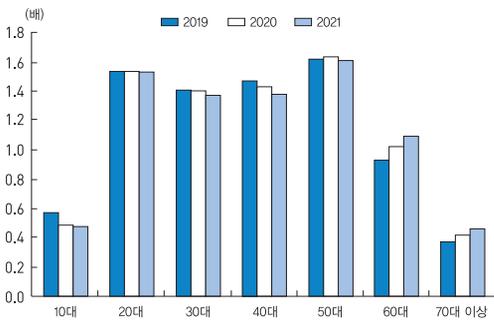
[그림 VII-28]은 세대별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활발한 여행활동을 보이는 세대는 50대로, 전체 세대 평균에 비해 2019년 1.62배, 2020년 1.63배, 2021년 1.61배의 활발한 이동량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여행활동이 활발한 세대는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전체 세대의 평균적인 여행활동에 비해 활발한 여행이동행태를 보였다. 반면 10대와 70대는 세대의 평균적인 여행이동



량에 비해 낮은 이동량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이동량 변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세대는 10대와 60대이다. 10대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전체 세대 평균 대비 0.57배이던 여행활동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체 세대 평균 대비 0.49배로 더욱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60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세대 평균 여행이동량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여행활동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행이동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 VII-28] 세대별 여행활동력 비교, 2019-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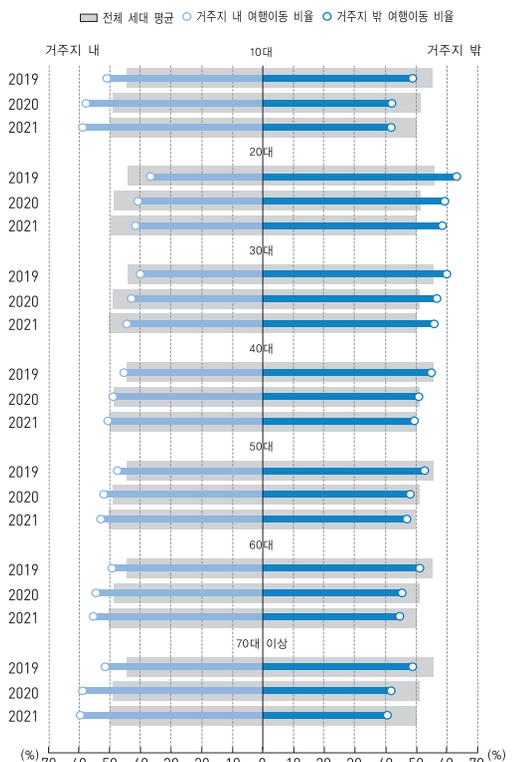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여행활동력은 전체 세대 평균 여행이동량 대비 해당 세대 여행이동량의 비로 파악하였음.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그림 VII-29]는 세대별 여행이동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거주지 내에서의 여행이동 과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이동을 구분

한 여행활동 환경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행활동 환경이 가장 넓은 세대는 20대로, 2019년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이동은 전체 세대 평균보다 7.48%p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여행활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넓어진 것을 확인

[그림 VII-29] 세대별 여행활동 환경 비교, 2019-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여행활동 환경은 세대별 전체 여행이동량을 거주지 내 이동과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으로 구분해 그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 비중이 클수록 활동 환경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할 수 있다(2020년 7.93%p, 2021년 8.38%p).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의 여행활동 반경이 좁아진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이 위축됐다.

여행활동 반경이 가장 좁은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2019년 거주지 내의 여행이동은 전체 세대 평균보다 7.08%p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여행활동 반경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여행활동 반경이 좁은 세대는 10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활동에 대한 자립성이 낮고, 학령인구가 주를 이루는 10대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여행활동 반경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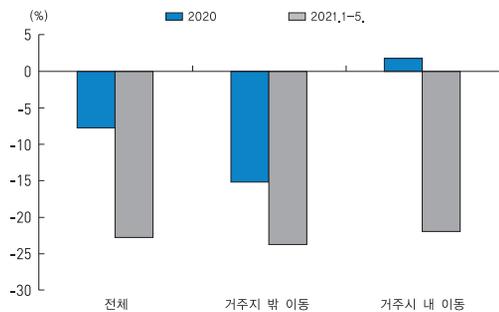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여행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림 VII-30]은 코로나19 발생 후로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의 경우, 전체 여행이동량은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며, 거주지 내 이동은 오히려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거리 여행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면서 거주지 내 여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바이러스 등의 위험은 여행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2021년 1-5월의 여행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하였다. 특히 대안적 여행활동으로 부상한 거주지 내 여행이동 역시

2021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9%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큰 폭의 여행 감소 현상은 백신접종이라는 긍정적 변수가 있었음에도 3차 대유행 이후 늘어난 확진자 수 규모와 생활권 내 높아진 감염위험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I-30] 코로나19 이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지자체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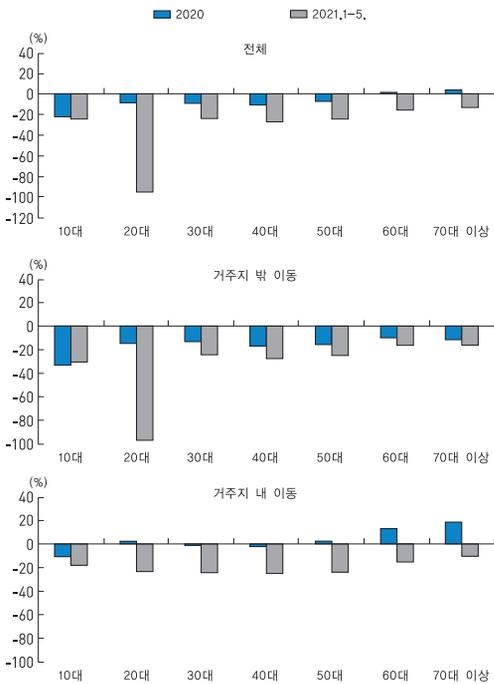
[그림 VII-31]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대별 여행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활동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세대는 20대로 2021년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96.8% 감소하였으며, 전체 여행 이동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4.7%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증가한 60대(12.4% 증가)와 70대(18.1% 증가)는 2021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생활권 내 감염위험 증가로 인해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각각 15.5%, 10.9% 감소하였다.

코로나19는 여행활동을 위축시키고 여행활동 환경을 좁혔을 뿐 아니라 선호하는 여행지의 변

[그림 VII-31]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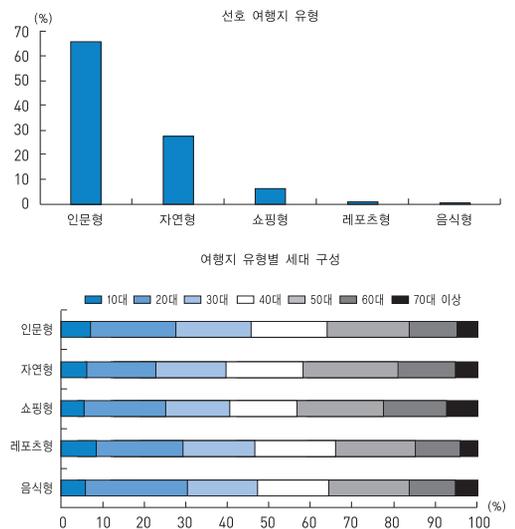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순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화를 가져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지 분류 기준에 따라 자연, 인문(문화/예술/역사), 레포츠, 쇼핑, 음식 등 다섯 가지 대분류로 여행지를 구분하고 여행지 속성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VII-32]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세대의 여행이동량을 통합해 선호 여행지 유형과 여행지 유형별 세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선호 여행지 유형을 보면, 인문형 여행지가 65.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형 27.3%, 쇼핑형 6.1%, 레포츠형 0.6%, 음식형 0.3%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그림 VII-32] 선호 여행지 유형과 여행지별 세대 구성, 2019-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순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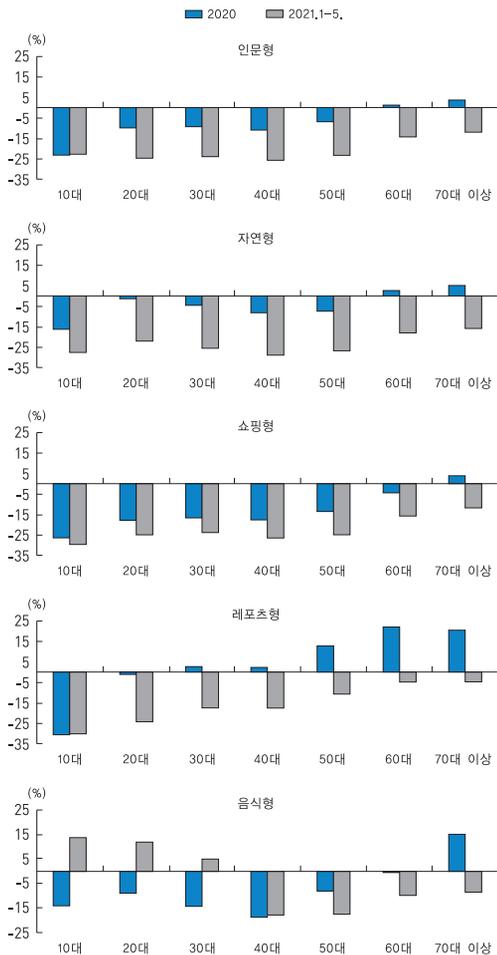
지 유형별 세대 구성을 보면, 인문형, 레포츠형,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형과 쇼핑형 여행지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활동력이 가장 높은 세대인 50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VII-33]은 여행지 유형별로 세대별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선호 여행지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변화를 보면, 10대는 거의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0대 또한 10대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40대는 10대의 부모세대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40대의 여행 감소는 10대의 여행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70대 이상은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레포츠형, 음식점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70대 이상의 거주지 내 이동 증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60대 또한 쇼핑형과 음식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세대별 여행이동이 감소한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레포츠형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의 변화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모든 세대의

여행이동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이동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림 VII-33]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지 이동량의 변화, 2020-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 (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불구하고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MZ세대로 분류되는 10-30대에서 여행이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MZ세대의 여행 트렌드와도 관계된다. MZ세대는 여행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카페와 특색있는 음식점에 집중되어 여행지 특유의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대별 여행이동 자체는 줄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코로나19는 여행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다.

전 세계는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을 기대하며 '트래블버블(협정을

맺은 국가 간 자유롭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과 같은 여행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여행은 한동안 '잠시 멈춤'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여행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대안적 여행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장거리 여행보다는 단거리 여행을, 유명관광지보다는 일상의 여행지를 여행하며 여행이 금기시되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여행산업은 오랫동안 관광수지 적자, 관광 내수시장 확대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여행지와 일상의 여행지들에 대한 매력을 찾아내는 등 내수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행의 위기는 지역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관광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